



2017년 12월 24일(제855호) **대림 제4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림시기의 마지막 제4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성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 성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가게마다 멋진 트리 장식과 알록달록 예쁜 전구가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서 캐럴이 들려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캐럴을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럴은 ‘울면 안돼’라는 노래입니다.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 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어린이들에게 상으로 선물을 준다는 노래입니다. 어린이들의 동심을 키워주고 착한 어린이가 되길 바라는 아름다운 캐럴이지만 이 노래 가사에서 어린이를 우리로, 산타 할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바꾸어 바라본다면 마치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으며 또한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가득 받을 수 있을까요? 삶의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보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려 노력하며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상선별약’ 이라고 가르치는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상을 받기에 합당한 이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벌을 받아야 하는 모습입니까?

대림시기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성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께 기쁨과 행복만이 아니라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져야만 하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고난의 길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만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비록 고난과 괴로움의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착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대림시기 동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길을 용감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성탄 전 마지막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아름답고 멋진 아기 예수님의 구유를 만들어 갑시다.



김대군(대지인드레이) 신부
오뚜기(육군 제8사단)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2사무 7,1-5.8ㄷ-12.14 7.16
- 회 답 송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제 2 특 시 로마 16,25-27
- 복음 판호송 ◎ 알렐루야
-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 복 음 루카 1,26-38
- 영 성 제 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진리를 살다

영성체 준비 예식이 끝나면 먼저 사제부터 성체와 성혈을 영합니다. 이어 신자들의 영성체가 시작되는데 이때 사제는 신자들에게 가서 매번 성체를 조금 들어 보이며 “그리스도의 몸”하면 신자들은 “아멘.”하고 응답하면서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이 ‘아멘’은 주님과 만남을 의식적으로 또 믿음으로 ‘네’ 하고 받아들이는 자신의 신앙고백입니다. “네, 이 작은 빵이 주님의 거룩한 몸이자 주님이심을 믿고 받아 모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영성체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일치와 결속을 한층 더 깊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체는 공동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멘’을 중얼거리듯이 말하지 말고 또렷하고 크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성체를 모시기 위하여 침묵 중에 주님의 식탁에로 나아가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영성체 행렬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 위한 단순한 줄서기가 아니라 주님 만찬 석상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같이 노래하고 함께 행동하기를 요구합니다. 성찬례의 정점은 영성체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을 이룹니다. 이에 어울리는 것은 침묵이 아닌 환호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주님의 식탁에로 나아가는 우리들은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공동행위에서 우리들은 선물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두 함께 노래하는 것은

영성체

하느님께 대한 공동의 찬미이고, 신앙일치의 증거입니다. 영성체는 개인적인 신심의 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는 것만은 아니기에 모두 같이 노래하지 않으면 일치의 의식, 나눔의 의식에 참가하는 것이 못 됩니다. 실제로 영성체 노래는 미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초세기에 영성체 행렬 동안 성가대에서 노래한 구절을 부르면 공동체는 이에 응송을 불렀습니다. 노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경본의 영성체송을 신자들이 낭송하게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그날 미사에서 축성되었던 성체를 모시게 하는 점을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전례헌장(55항)의 정신에 따라 제정된 미사경본 총지침(85항)은 “사제 자신과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바로 그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로 주님의 몸을 모시고, 미리 허용된 경우에는 성작에서 성혈을 모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지시합니다. 축성된 성체를 감실 안에 보관하는 것은 원래 중환자에게 향시 노자 성체(viaticum)를 수여 할 수 있는 데에만 그 의미를 가졌습니다. 교회의 이 같은 공식적인 가르침과 권고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본당에서 무시되고 더 나아가서 비축용으로 축성되었다는 사실은 기이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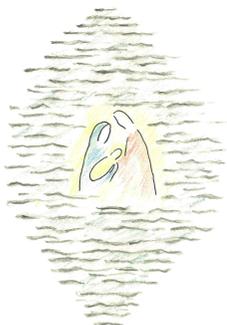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탁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발췌』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세상의 빛이

어머니의
인내로.

아버지의
순종으로.

세상에
빛이.

내안에
평화가.

상화이야기

수태고지



베로키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1472-1475년 작
 패널 위 유화 / 템페라화 혼합 98 X 217 cm
 우피치 미술관, 이탈리아 피렌체

에서 자매님들이 미사보를 쓰시는 것과 수녀님들이 머리카락을 가리시는 것과 의미와 맞닿아 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막 도착한 듯, 위쪽 소매에 묶인 리본이 바람에 훑날리고 있으며, 천사가 들고 있는 백함은 피렌체 도시를 상징하는 꽃인 동시에 성모님이 앉아 계신 단힌 정원과 함께 성모님의 동정을 상징한다.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우아함이 그림에 가득하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중략)...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김은혜(엘리사벳)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의 스승인 베로키오가 함께 그린 것으로 알려진 이 그림은 오늘 복음에서 낭독되는 수태고지 장면을 그린 것으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성모님의 공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성모님의 뒤편으로 성모님이 기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방과 같은 공간이 보인다).

성모님의 머리에 쓰고 계시는 베일은 성모님의 겸손함과 순종을 상징하는 것으로 현대에도 성당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대림 제4주일: 비룡 이동명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미사
 때·곳: 12월 24일(주일), 20: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때·곳: 12월 25일(월) 16:00, 희망대 성당

◆ 중무식

때·곳: 12월 29일(금) 11: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군 복음회, 변함없는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